

악취저감 '시민 의견' 시책에 적극 반영

측정기 설치위치 선정·조사용역 실시 등

익산시가 하절기를 맞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순문선 민간위원장의 주재 하에 열린 2019년 7월 민관협의회회의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절기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는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점검과 익산제1·2산단을 포함한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158건의 악취시료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인 '익산악취24'에 접수된 민원현황 분석, 야간악취상황실 운영 등 하절기 악취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환경전문가·사업장환경기술인·시민단체

및 주민대표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간 개최된 민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시민의견은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악취측정기 설치위치 선정 △익산악취24 시스템 홍보강화 및 활용 편리성 도모 △악취방지 예산 증액 △악취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용역 실시 △야간 악취전담인력 증원 등이다.

시는 이를 수렴하여 주요 악취발생 지역 10개소에 악취측정기를 설치, 악취감시시스템인 익산악취24를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접속방법을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배너·지

면광고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 운영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 분뇨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백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전문가와 협의 후 8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환경적 여건상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창립총회

특화상품 개발·지역 및 홈쇼핑 판로개척 등 진행하기로

군산시(시장 김임준)와 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과 연합해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5명과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군산공설시장 내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상인들로 구성된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협동조합은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꽃게육수팩'의 판매 활성화와 더불어 조지화를 통한 청년상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

회와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2019년도 청년몰 사업으로 △청년몰 특화상품 개발 및 제품출시 △지역 및 홈쇼핑등을 통한 판로개척 △조지화 등을 통한 수익창출 아이디어 생김 과정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박규영(청년몰입주, 고메1370운영)대표는 "청년상인조합은 청년몰 상인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앞으로 청년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청년상인조합 창립을 계기로 군산시 청년상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산시에서도 청년상인들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꽃게육수팩'은 1팩(10봉)당 7,500원 정도에 시판될 예정이며 8월말 시장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31일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과 연합해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5명과군산공설시장 청년몰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원광대 노인건강정보소통연구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영수) 노인건강정보소통연구팀이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융복합연구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학문 경계를 넘어, 복잡한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기반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광대 노인건강정보소통연구팀(연구책임자 박성지 교수)은 특수교육학 박사지 교수를 비롯해 간호학 강지숙 교수, 교육학 문경숙 교수, 보건학 황종남 교수, 작업치료학 우희순 교수, 재활의학 김지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융복합 연구팀으로 '노인 건강정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Care+Care+Edu Platform(CCEP) 개발'을 주제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연구팀은 올해부터 연 1억 5천만원씩 3년간 총 4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구책임자 박성지 교수는 "노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교육자 및 돌봄이 같은 전문가 집단에 양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임신·출산·육아정보 가이드북 발간

익산시, 맞벌이 부부 지원·가구별 맞춤 지원 등

익산시는 아이가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명품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임신·출산·맞춤 육아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과 익산시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출산장려금, 임신부 280 건 강관리비 지원, 휴일(토요일) 간간시간제보육사업,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다함께 돌봄, 이동식 놀이교실 등 익산시 특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익산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며, 그 외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치해 놓아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익산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이 영유아 부모님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익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가정이라면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hildcare.iksan.go.kr>) 또는 전화(☎063-850-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개편된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

공인중개사, 외국어, 자격증 등 400여 개 온라인 강좌 제공

익산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인중개사, 외국어 등 400여 개의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최근 개편된 사이버평생학습센터는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자격증(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심리상담사, 바리스타 등) △정보화(한글, 엑셀 등) △자기개발

(인문학, 스피치 등) △재테크 △취미(요리,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등) △생활건강(페이스요가 등) △자녀교육 등 8개 분야 400여 개 강좌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부 과정은 모바일로도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내년 6월 4일까지 제공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www.iksan.go.kr/III)를 참고, 전화(☎063-850-5155/582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종합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One-Stop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상담사 6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취·창업 연계,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 상반기에 735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성과

를 거뒀다. 더불어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로봇 코딩강사 양성과정 등 산업체 수요에 맞춘 여성특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을 운영하며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 13명이 취업을 한 상태다.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7회),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3개소)을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장애인 고용증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익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지난 31일 시장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전북지사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공단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나이가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근로지원인 사업에 참여시켜 고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증

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의 고용증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